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배포일자	2023년 4월 28일(금) 총 2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 당 자	• 안전기획팀장 김수진 ☎440-5731 • 담당자 김은정 ☎440-5733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5월 어린이날 맞아 어린이안전 대책 점검

- 25일 ‘시민안전정책회의’ 서 시·군·구, 경찰청, 교육청 등 협력방안 논의 -
- 등하교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 및 놀이시설·유원시설 안전점검 강화하기로 -
- 청소년 이용자 많은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이용 환경 조성방안도 논의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25일,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과 등하교 보행안전 환경,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이용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시, 군·구, 경찰청, 교육청이 참석했으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을 맞아 어린이안전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등하교 어린이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인천시는 4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보도설치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75개소에 총 12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에 경찰을 배치해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찾아가는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통행제한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내 보차도 분리사업과 교통안전지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운영, 주요통학로 전수조사, 통학버스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등하교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안전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 군·구, 교육청, 경찰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각자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